

대학생의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 혜 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동 혁†

건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전공재변경 의향여부에 따라 전공변경 실행 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을 비교해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K대학교에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 3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전공 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11명, 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CQR-M)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11명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는 크게 2개 영역(새로운 기회 추구/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과 4개 범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 전공변경 실행 과정을 실행동기 영역과 실행방식 영역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실행 동기의 경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전 학과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동기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희망진로와 취업을 성취하기 위한 접근동기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행방식의 경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공변경이 가능한 기본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다소 소극적인 실행방식을 보인 반면,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교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한 정보탐색 및 타 전공 교과목 수강과 같은 적극적인 실행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공재변경 의향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기술하고,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학생 개인 및 대학의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전공변경(전과), 전공재변경,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CQR-M)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교육연구진흥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혁,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상담심리 및 학교심리 전공,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Tel: (02)450-3298, E-mail: dhlee@konkuk.ac.kr

서론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대학생활 적응과 졸업 후 진로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전공이 자신의 특성과 맞지 않거나 원하는 진로를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면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공에 소속감을 느끼기도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전공 변경¹⁾을 고민하게 된다(강승호, 2010; 강혜영, 김지연, 정태중, 2018; 박안숙, 김혜경, 2016; Denice, 2021; Malgwi, Howe, & Burnaby, 2005). 전공변경의 고민은 대학생들이 겪는 주요 진로문제 중 하나이기에(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이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학, 교수, 상담자 등은 대학생의 전공변경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생 진로결정, 전공 불일치(적응)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김진희, 2014; 박희인, 구자경, 2011; 이수진, 임은미, 2012; 임은미, 2011; 최보라, 모화숙, 2018)을 살펴보면, 대학생 전공변경의 중요성과 개입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입요인을 질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본 연구(임은미, 2011)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은 ‘입학-학과적응-희망직업구체화-진로준비행동-진로결정 공고화’의 다섯 단계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한 개입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

의 진로결정과정에서 학과(전공)적응과 자신의 학과(전공)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전공불일치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및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흥미, 능력, 가치 등)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맞지 않을 때, 학업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전공구성원과의 갈등을 겪을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전공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외적요인을 우선하여 전공을 선택했다거나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선택한 경우) 전공불일치를 경험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영, 김지연, 정태중, 2018; 김진희, 2014; 박희인, 구자경, 2011; 이수진, 임은미, 2012; 최보라, 모화숙, 2018; Denice, 2021; Malgwi, Howe, & Burnaby,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에 잘 적응하고 전공변경 문제로 갈등을 덜 겪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선택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특성(흥미, 능력, 가치 등)과 희망진로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학의 전공 선택이 고교시절이나 대학 입학 후 1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과 희망진로를 제대로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전공 선택 당시, 진로 목표를 고려하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진로목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고홍월, 2017)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공변경 고민을 하게 된다. 임은미, 이수진, 송미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 전체 중 39.5%, 그리고 1학년 학생

1) 대학에서 전공 바꾸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전공변경, 전공전환, 전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공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다만 학사제도를 표현할 때는 ‘전과’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어 ‘전과 제도’라 표기하였음.

의 50.2%가 전공변경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4학년 학생 중에서도 10%가 넘는 학생이 전공변경 의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이 전공에 적응하지 못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전공변경(전과) 제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과 가능시기와 허용 횟수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2-3학년 사이에 재학 중 1번만 주어지는 쉽지 않은 기회이다(강혜영, 이동혁, 2020).

이와 비교하여 전공변경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전공변경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Denice(2021)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의 서부, 중서부, 동부지역에 소재한 2개의 공립종합대학교 1개의 사립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전공변경 현황과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공변경은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은 그들의 전공을 여러 번 바꾼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55.9%, 1번 전공변경한 경우는 32.0%, 2번 이상 전공변경 한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그리고 2번 이상 전공변경한 학생들 중 83%는 2번, 17%는 3-4번 변경하였다. 한국 대학과 달리, 전공변경이 자유로운 미국 대학의 경우, 약 46%의 학생이 1회 이상 전공변경을 할 정도로 전공변경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대학의 경우, 전공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공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haw와 Barbuti(2010)는 2학년 말을 시점으로 원전공을 변경한 학생들과 원전공을 지속한 학생 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전공을 지속한

학생들이 변경한 학생에 비해 고교, 대학 1학년, 그리고 누적 대학 평점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unningham과 Smothers(2010)은 전공변경을 자주 한 학생과 자주 하지 않은 학생 간에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3번 이상 전공변경 한 학생들이 3번 이하로 전공변경 한 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공변경이 학업성취(Shaw & Barbuti, 2010),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Cunningham & Smothers, 2010) 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주 전공변경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듯 자주 전공변경 하는 학생들이 원 전공에서의 학업적 어려움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제도적으로 전공변경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전공변경 고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전공변경에 영향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최근 한국 대학에서도 차츰 전공변경의 횟수, 시기, 제한 조건 등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사제도가 변화되고 있다(지방 D사립대, 지방 S사립대). 이렇게 전공변경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한편으로 학생들의 전공 부적응 및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Shaw와 Barbuti(2010), 그리고 Cunningham & Smothers, (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 전공에서 학업성취가 낮거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원 전공에서 적응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쉽게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 전공에서 여러 번 전공변경을 하

게 되는 다양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공(재)변경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원 전공에 갈등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공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변경 의향과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국내 연구 중 전공변경 자체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강혜영, 이동혁, 2020). 대신 전공변경과 관련 있다고 보이는 전공적성 불일치 관련 연구들을 통해 전공변경의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희인과 구자경(2011)은 전공적성 불일치 경험이 있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로를 설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적성 불일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의적 질적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공적성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성향과 전공이 맞지 않을 때,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괴리감을 느낄 때,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입학 전나의 예상이나 기대와 전공이 다르게 느껴질 때, 전공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느낄 때, 교수법에 의해 학업흥미를 상실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추려보면 자신의 특성(성향, 흥미, 가치관 등)과의 불일치와 같은 ‘자기특성 요인’, 학업수행 어려움 및 학업흥미 상실과 같은 ‘학업요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미래 진로 요인’, 예상이나 기대와의 불일치와 같은 ‘정서적 요인’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전공(재)변경에 영향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 전공에 갈등을 느껴 실제로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전공변경 동기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강혜영과 이동혁(2020)은 실제 전공변경을 실행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변경을 실행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개 영역과 11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I은 ‘전적학과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로 6개 범주(나의 특성과 맞지 않음, 성공적인 진로성취의 어려움이 예상됨,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 전공변경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전적학과 내에 있었음, 전적학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음)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영역 II는 ‘현적학과를 선택한 이유’로 5개 범주(나의 특성과 맞음, 희망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전공변경 시 합격 가능성을 고려함,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음, 학과의 특성이 마음에 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전공변경 관련 요인들은 앞서 언급하였던 ‘자기특성 요인’, ‘학업요인’, ‘미래 진로/취업 요인’, ‘정서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로 주위 사람들의 영향과 같은 ‘관계 요인’, 입학 당시부터 원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한 것과 같은 ‘의사결정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재)변경에 영향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하였지만 다시 해당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전공으로의 전공재변경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 전공재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대학의 경우, 대부분 1회의 전공변경만 허용하는 상황이므로 실제 전공재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1회의 전공변경만 허용하는 국내에서는 전공재변경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1회의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전공변경은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전공선택도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흥월(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변화되는 진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본 연구는 전공선택과 선택한 전공에 적응을 해야 하는 학생 개인, 그리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 대학 및 관련 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1회의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하는데, 먼저, 이미 전공변경한 학생들 중,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재변경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간에 전공변경 실행 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실행동기와 실행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전공선택이라는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종합하여 대안 도출 및 비교해보는 등의 실행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Sampson, Reardon, Peterson & Lenz, 2003).

연구방법으로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CQR-M은 설문을 통해 수집된 비교적 큰 표본의 질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본 연구와 같이 탐색적 질적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주은선, 이수정, 김수연, 2016; Hill, 2012). 현재 국내 연구 중에는 대학에서의 전공변경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CQR-M과 같이 최대한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연구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1회로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전공재변경 의향여부에 따라 전공변경 실행 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을 비교해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들 중에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재변경을 원하는가? 둘째, 1차 전공변경 실행 후,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과 의향이 없는 학생들 간 전공변경 실행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견되는가? 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4년제 K대학교에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 33명이다. 이 가운데 전공 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11명, 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각각 <표 1>과 같다.

표 1. 전공재변경 의향여부에 따른 집단별 연구 참여자 특성 (N=33)

변수	범위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전체
		사례 수	백분율 %	사례 수	백분율 %	
학년	2학년	3	27.3	4	18.2	33명 (100%)
	3학년	1	9.1	7	31.8	
	4학년	6	54.5	8	36.4	
	5학년 이상	1	9.1	3	13.6	
전공변경 시기	1학년 2학기	3	27.3	7	31.8	33명 (100%)
	2학년 1학기	7	63.6	13	59.1	
	2학년 2학기	0	0.0	1	4.5	
	3학년 1학기	1	9.1	1	4.5	
연령	19-20세	2	18.2	5	22.7	33명 (100%)
	21-24세	7	63.6	14	63.6	
	25-28세	2	18.2	3	13.6	
성별	남성	2	18.2	9	40.9	33명 (100%)
	여성	9	81.8	13	59.1	
입학유형	수시	5	45.5	16	72.7	33명 (100%)
	정시	6	54.5	6	27.3	
전공변경 계열*	같은 계열 내 변경	10	90.9	20	90.9	30명 (90.9%)
	다른 계열 간 변경	1	9.1	2	9.1	3명 (9.1%)

* 문과(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등)와 이과(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등) 계열로 구분한 것으로 문과->문과, 이과->이과(같은 계열), 문과<-> 이과(다른 계열)을 의미함.

자료수집²⁾

연구참여자 모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인 전공변경 실행 학생에

2)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의 전공변경 실행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로, 일부는 선행연구(강혜영, 이동혁, 2020)에서 분석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재변경 의향을 중심으로 재 분석한 것임.

대한 모집은 2019년 5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를 위해 K대학교 학사팀에 연구의 취지를 포함한 ‘자료수집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 협조를 구하였고, 5년간 전공변경을 실행한 재학생들의 명단을 받았다(2014-1학기~2018-2학기).

1차로 5년간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들(약 4천명) 가운데 500명을 무선 표집하였고, 이들

에게 연구의 취지를 포함한 <연구참여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하였다. 1차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7명이었다. 2차로 다시 연구참여자 모집 메일을 발송하였고, 13명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메일 발송을 통한 1차와 2차 연구참여자 모집에 추가하여 3차 모집은 취업팀의 협조를 통해 수업에서 연구참여자 홍보 안내를 하였다. 14명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3차에 걸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34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최종 33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지 제작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본래 대학생의 전공변경 실행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진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작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해 설문지 구성을 ‘전공변경 실행 이전의 경험,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경험 및 이유, 전공변경 실행 이후의 경험 및 지원 요구’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책임자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공동연구자에게 메일로 공유하여 여러 차례 전체 구성 및 세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둘째, 연구진이 완성한 설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2인(2인 모두, 현직 상담분야의 대학교수이면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의 내용은 문항의 구성 순서 및 세부 문항의 표현 등에 대한 것이었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 후,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셋째, 설문지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학원 조교들에게 학생입장에서 문항의 표현, 실시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최종 제작된 설문은 크게 ① 전공변경 실행 이전의 경험(예: 처음 선택했던 학과 결정 시기, 전공변경 고민 시작 시점 및 이유, 전공변경 결정 시점 및 이유 등) ②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경험 및 이유(예: 전공변경 실행 시점 및 이유, 전공변경을 실행하기까지의 전반적 경험, 어려움, 대처 노력 등) ③ 전공변경 실행 이후의 경험 및 지원 요구(예: 전공변경 실행 후의 전반적 경험, 좋은 점, 어려운 점, 전공재변경 의향여부 및 전공재변경 이유 등)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³⁾

자료 분석팀 및 감수자

수집된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2인의 상담전공 교수와 3인의 상담전공 대학원생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2인의 상담전공 교수는 CQR 및 CQR-M을 포함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심사한 경험이 있다. 3인의 상담전공 대학원생은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은 없으나, 본 연구를 위하여 1인의 상담전공 교수와 함께 CQR-M 연구방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기존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분석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팀은 본 연구를 위해 카톡,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논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CQR-M은 CQR과 달리, 분석팀의 합의 절차 이외 별도의 감수 절차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다(Hil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2인의 감

3)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대학생의 전공변경 실행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제작된 설문지 문항을 재변경 의향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재분석한 것임.

수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감수자 2인은 모두, 4년제 대학의 상담 분야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심사 및 자문한 경력을 갖고 있다.

자료 분석 과정

영역과 범주 구성. 전공변경 대학생의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I(책임연구자)은 일차로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응답 자료를 엑셀로 코딩한 다음, 이를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사례와 전공재변경 의향 없는 사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자 1은 정리된 자료를 연구자2(공동연구자)와 3인의 대학원생에게 메일로 보냈고, 각자 자료를 검토하여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를 분석해보고, ‘전공변경 실행 과정’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분석팀은 각자 엑셀 표에 핵심주제를 메모하여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예비범주와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자 작업한 내용을 카톡,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며 영역과 범주를 수정해나갔다.

구체적인 영역과 범주 도출은 크게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와 ‘전공변경 실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에 대한 분석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 면 현재의 학과(1차로 전과한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또다시 전공변경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3명 중, 11명이었고 11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영역과 범주를 도출

하였다.

다음으로 ‘전공변경 실행 과정’은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학생 집단(A: 11명)과 전공재변경 의향 없는 학생 집단(B: 22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공변경 실행 과정’에서의 영역은 분석팀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자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전공변경 실행 동기’, ‘전공변경 실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한 범주 도출은 분석팀 각자가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살펴보고 핵심주제를 메모하고, 유사한 내용의 핵심주제를 묶어 예비 범주를 구성한 다음, 상호 검토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분석 초기에는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각각을 분리하여 분석·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공통된 내용도 있으나 어느 한 집단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내용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비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집단 간에 유사한 내용은 공통된 범주명으로 통일하여 명명하게 되었고, 대신 핵심주제에서 각 집단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은 각주를 달아 표기하게 되었다. 한 예로, ‘전공변경 실행 동기’ 영역의 경우,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집단에서 나타난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범주명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집단에서 나타난 ‘전적학과의 수업내용이 어려움’이라는 범주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이 전공재변경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으므로 각 집단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범주를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빈도 및 비율 계산.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분석 절차에 따라 범주별로 연구참여자 반응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Hill, 2012). 각 범주의 빈도는 해당 질문에 대한 연구참여자 들의 응답한 내용이 한 개 이상의 범주에 속할 때는 해당 범주 각각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비율은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집단과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해당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전체 반응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결 과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

본 연구의 대상은 이미 전공변경을 시행하

여, 입학 당시 학과(전적학과)가 아닌 전과한 학과(현적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이미 전공변경을 시행했지만 전공변경을 시행한 후에도 다시 전공변경(전공재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전공재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탐색하였는데, 분석 결과 2개의 영역과 4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표 2 참조).

영역 1: 새로운 기회 추구

첫 번째 영역은 ‘새로운 기회 추구’였다. 즉, 더 나은 취업이나 새로운 관심사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역을 구성하는 2개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이유는 ‘희망 진로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

표 2.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의 영역, 범주, 핵심주제

영역	범주	핵심주제	빈도	비율
새로운 기회 추구	희망 진로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 취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함. 취업하는데 성별로 인한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함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함. 	4	33.3%
	다른 계열에 새로운 관심이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을 들으며 하고 싶은 진로가 명확해짐. 타전공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함. 	4	33.3%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	전공변경 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진로 및 흥미에 대한 탐색없이 전과하여 후회함. 현적학과관련 정보탐색부족에 대해 후회함. 	2	16.7%
	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리큘럼의 응용 분야 부족에 대한 아쉬움. 교수에 대한 실망으로 전과를 후회함. 	2	16.7%
계			12	100%

각함'이었다. 즉, 이미 한번 전공변경을 시행하였지만, 전공재변경을 하는 것이 희망 진로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전공재변경을 하면,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전공의 관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현적학과를 졸업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성별로 인한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요즘 취업 준비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여성 취준생에게 가해지는 허들이 너무 높고 힘들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더 가망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사례 17).”

둘째, 첫째 이유와 동일하게 많은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다른 계열에 새로운 관심이 생김’이었다. 전공변경을 했지만 전공변경을 한 후에 다시 수업을 듣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다른 학과에 관심이 생겨서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지금 재학 중인 학과에서 수업을 듣다보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진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보다는 경영계열이 맞다는 생각이 4학년이 돼서야 들게 되었습니다(사례 4).”

영역 2: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

두번째 영역은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이었다. 즉, 충분한 탐색 없이 전공변경을 시행한 것을 후회하거나 선택한 학과가 기대와 일치

하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게 되어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역의 2개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변경을 할 때 충분한 탐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즉, 자신의 진로 및 흥미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하지 못했고, 현적학과에 대한 정보탐색도 하지 못해 전공변경을 한 결과에 대해 후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공변경을 실시하여 다시 전공변경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의 특성에 좀 맞는 과를 왔어야 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랐고 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사례 26).”

둘째, ‘현적학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가 이유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전공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전공변경을 하고 싶다는 응답을 한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현적학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XX과의 경우 지식의 기초를 배우는 커리큘럼이 탄탄한 대신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임. 진로에 대해 결정할 때도 두루뭉술한 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과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배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과로 전과하고 싶음(사례 8)”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에 따른 1차 전공변경 실행 과정에 대한 비교

지 않는 선에서 다른 학과를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사례 4)”

본 연구의 대상은 전공재변경을 실행한 학생이 아닌,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이다. 이들 중,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의 실행 과정을 탐색하고 비교해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이 1차로 전공변경을 실행했던 과정을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영역은 ‘전공변경 실행 동기’로 대학 입학 후, 전적학과를 떠나 현적학과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전공변경 실행 방식’이었다. 즉,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이유는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대학 입학 당시 성적에 맞추어서 학과 지원을 하다 보니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래 희망했던 학과로 전공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 대학교 진학할 때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고자 하였고, 일단 XX학과에 들어가서 전공변경을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사례 4)”

영역 1: 전공변경 실행 동기

셋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것이 ‘희망 진로 분야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이 다음으로 많았다. 새로운 학과로 전공변경을 하면, 전적학과에서 졸업하는 것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진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6개의 범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은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표 3 참조).

“차라리 취업이 잘되는 XX 쪽으로 가고자 결심했던 것 같다. XX과 쪽은 취업도 잘되고 XX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사례 33)”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이 전공변경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던 동기는 6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XX과에서는 물리를 기반으로 수업을 배우는데, 저는 그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는 전공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대에서 벗어나

넷째, ‘전적학과 수업내용이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수업내용을 소화하기 어렵거나, 커리큘럼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든 상황은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하는 중요

표 3. 전공변경 실행 동기의 범주와 핵심주제

범주	핵심주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음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학과에 흥미와 관심이 없음. 전적학과에 미련이 없음. 현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흥미가 생김. 관심있는 학과가 생김. 	5	25.0%	10	27.8%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입시 당시 성적에 맞추어 원하지 않은 학과에 지원하였음 성적에 맞추어 입학 후 희망했던 학과에 전공변경하기로 계획함 	4	20.0%	8	22.2%
희망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분야의 진로 가능성을 고려함.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함. 취업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음 	3	15.0%	9	25.0%
전적학과의 수업내용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어려움. 	3	15.0%	-	-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학과의 분위기가 불편함. 전적학과의 인간관계가 불편함. 	3	15.0%	-	-
전공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조건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변경 시스템이 간단하고 쉬움. 전공변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분위기가 있었음 전공변경이 재수, 편입, 다전공에 비하여 유리함* 	2	10.0%	4	11.1%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학과의 수업내용과 방식이 기대와 다름. 학과 개편으로 학과 구성원과 학습내용이 달라짐. 	-	-	5	13.9%
계		20	100%	36	100%

*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해당 됨

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화하기 어려웠음(사례 8)”

“개인 성향, 전공변경 전 학과와의 전공 적합성 등이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음. 특히 전 학과의 커리큘럼이

다섯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중에는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껴’ 전공변경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즉, 전적학과에서 대

인관계에서나 분위기 등에서 느껴졌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전적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딱히 없었고 과에도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들이 있어서 학교에 성실하게 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과에 가서 고등학교 때 잘하던 공부를 해야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사례 28)”

여섯째, ‘전공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 조건을 경험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공변경을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거나, 전공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전공변경을 문제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는 전공변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전공변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했다. 수강신청보다 더 쉬울 정도였다. 클릭 한 번이며 쉽게 다른 학과로 전공변경할 수 있었고 경쟁률이 1도 안되는 학과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한다면 쉽게 어느 학과라도 갈 수 있다는 마스터 패를 가진 기분이었다(사례 2)”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는 5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된 동기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이었다.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

게 되었던 동기는 바로 전적학과에 대해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학과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전공을 원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교수진에 대한 신뢰 또한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사례 14)”

둘째, ‘희망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학생도 많았다. 즉, 전공변경을 하면, 새로운 진로 가능성이 생길 뿐 아니라, 취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전공변경 실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고 싶은 전공에 어떤 학과가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XX학과보다 XX학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사례 7)”

셋째,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변경을 고민한 학생들이 다음으로 많았다. 입학 당시 성적에 맞추어서 입학을 하다 보니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결과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전공변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원래 하고 싶은 진로가 대기과학, 해양학 등의 지구과학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지구과학 관련과가 서울에 많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XX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름

대기과학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사례 7)”

넷째,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즉, 전적학과의 수업내용이나 수업방식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나, 학교 사정으로 전적학과 구성원이나 학습내용이 달라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전적대로 있었던 XX학과가 학과 개편제도로 인해 통폐합되어 기존의 과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수님들이나 학과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전통 있고 취업률이 좋은 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보면서 학교가 건들지 않고 키워주는 유망한 XX계열 쪽 학과로 전공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사례 32)”

다섯째, ‘전공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스템과 분위기가’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공변경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거나, 전공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전공변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학과로 옮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재수, 편입, 다전공)이 전공변경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공변경을 실행한 것이다.

“당시에 전공변경이라는 것이 두려움보다는 더 좋은 진로를 찾기 위한 도전이었다

고 생각하였다. 당시에 XX학과 선배들의 경우 전공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분위기였기에 나도 전공변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사례 25)”

이러한 결과를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모두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이었다. 또한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과 ‘희망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동기였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이러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에 반하여,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적학과 수업내용이 어렵거나’ 또는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역 2: 전공변경 실행 방식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전, 무엇을 하였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모두 4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표 4 참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전공변경을 실행했던 방식은 총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 ‘타인과 의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 형제, 자매 뿐

표 4. 전공변경 실행 방식의 범주와 핵심주제

범주	핵심주제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타인과 의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부모, 형제자매)과 함께 의논함 학과 동기, 선배와 의논함 전공변경 경험이 있는 선배와 의논함 교내 취창업진로센터 선생님과 상담함* 현적학과 재학생, 교수님과 의논함* 관련 진로분야 조사자와 의논함* 교외 지인(친구, 선생님, 군대선후임)과 의논함* 	7	36.8%	13	36.1%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검색을 활용함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소개와 교육과정을 찾아봄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함 	6	31.6%	9	25.0%
다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변경할 전공수업을 미리 수강함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수강함 관심 학과의 수업을 미리 들음 다전공을 통해 현적학과의 수업을 수강함* 	4	21.1%	9	25.0%
전공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변경 최소 기준학점을 충족시키고자 함 성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2	10.5%	-	-
교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 사무실, 행정실에 연락하여 정보를 수집함 현적학과 연구실을 둘러봄 교내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분야와 직무에 대해 알아봄 	-	-	5	13.9%
계		19	100%	36	100%

*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해당 됨

아니라, 학과 동기나 선배 등과 의논 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과 동기들. 전공변경 신청 당시에 함께 단기 프로그램을 갔던 동기들이었다. 동기들도 전공변경나 다전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나 장래희망, 남은 대학생활 계획을 많이 물어

보았다(사례 16)”

둘째,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많았다.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 정보 등을 탐색하고 전공변경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타임을 이용해서 전공변경할 과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과분위기나 커리큘럼에 대해 많이 질문하고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사례 28)”

셋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였다. 다양한 학과의 수업뿐 아니라, 특별히 관심이 가는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해보면서 전공변경하고자 하는 학과가 자신의 특성과 맞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어떤 과로 갈지를 고민하느라 철학과, 영문학과,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과목 등 다양한 과의 수업을 들었음. 그걸 바탕으로 XX학과 분위기가 저와 가장 맞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에게 통보 후 1학년 겨울방학 때 전공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사례 17)”

넷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공변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한 것이다.

“저희 학교 전공변경은 학점 2.7만 넘으면 자유롭게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7을 넘기하고자 열심히 공부하였고 실제로 전공변경을 하고 나서 배우는 수업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사례 4)”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전공변경을 실행한 방식은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타인과 의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동기 및 선배 등과 의논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교수님, 관심 진로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전공변경에 대해서 의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변경하려는 학과는 저와 달랐지만 같이 전공변경을 고민하던 XX학과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전공변경 성공할 거다 안심시켜주는 정도의 스몰 토크를 나눴습니다(사례 9)”

“진로와 관련해서 XX대학 소속 교수님을 찾아뵈. 그분께서는 학과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전공변경을 말리심.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무엇을 하든 열심히’라는 말이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 듯. XX 쪽에서 일하시다 현재엔 그만두신 분을 알게 되어 학과 공부에 관한 것, 졸업 후 진로, 업무량, 전공변경을 통해 내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 추가적으로 그분의 소개를 통해 현재 업계에 계신 분과도 대화할 기회를 가짐. 이를 통해 XX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걱정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음(사례 18)”

둘째,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였던 학생도 많았다. 다양한 학과 수업뿐 아니라 관심있는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면서 자

신의 특성과 맞는지를 탐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자신이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거나 다전공 형태로 다른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수업을 들어보며 해당 단과대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음. XX대학교 XX대학의 분위기는 건물의 연식, 사람들의 외모나 그 분위기에서도 꽤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1학년 당시 꽤 유치한 생각이지만 나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사례 25)”

셋째,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공변경을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탐색하였을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학과를 다니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전공변경을 하려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사례 32)”

넷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교내 기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탐색’하였다. 특히, 학과사무실이나 행정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공변경을 할 학과의 연구실을 방문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교내 취업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님과 가장 많은 의논을 하였고, 좀 더 확실한 정보와 충고를 받기 위해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XX학과와 XX학과의 비전 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사례 6)”

이러한 결과를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에 따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전공변경 과정에서 ‘교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온라인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내 행정실이나 연구실 등을 방문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함께 전공변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 중, 전공재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를 탐색하고, 전공변경을 실행한 후에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의향이 없는 학생들의 전공변경 실행과정(실행 동기, 실행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K대학 학생 중 전

공변경 경험이 있는 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CQR-M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3명 학생 중에서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후,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11명이었고, 의향이 없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연구문제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공재변경 희망 학생들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

전공변경을 이미 실행한 학생 중에 전공재변경을 희망하는 11명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는 크게 2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새로운 기회 추구’였다. 즉, 새로운 기회를 갖고자 전공재변경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비록 한번 전공변경을 했지만, 다시 전공변경을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영역은 다시 ‘희망 진로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다른 계열에 새로운 관심이 생김’이라는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취업하고자 전공재변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즉, 다시 전공변경을 하게 되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공변경 후에 다른 계열에 관심이 생겨서 전공재변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도 많았다. 전공변경 후에 새로운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공재변경에 대한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의 두 번째 영역은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이었다. 즉, 전공변경

을 실행하면서 했던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영역은 ‘전공변경 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우선,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전공변경을 실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다시 전공변경을 해서 이러한 후회를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다. 다음으로, 현적학과에 대한 기대와 실체가 일치하지 않아 다시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전공변경을 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수님 등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것이 있었지만, 전공변경 후에 경험해 보니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진 학생들이 전공재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만회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특성과 더 잘 맞는 전공(개인특성-전공 일치 요인), 희망진로에 더 도움되는 전공(진로/취업 도움 요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 전공으로의 재변경을 희망하거나 막상 전공변경을 하고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불일치하여 실망하고(기대-현실 일치 요인) 보다 충분한 정보 탐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사결정 오류 요인)로 전공재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러한 전공재변경 이유를 1차 전공변경⁵⁾

4) ()안의 요인명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시한 것임.

이유와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공변경 실행이유를 살펴본 연구(강혜영, 이동혁, 2020)에서도 전적학과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가 ‘나의 특성(흥미, 적성)과 맞지 않음(39.4%)’ ‘성공적인 진로성취의 어려움이 예상됨(36.4%)’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33.3%)’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24.2%)’ 등이었다. 결국, 학생들이 1차 전공변경이나 전공재변경을 원하는 주요 이유는 자신의 특성과 잘 맞는가 하는 ‘개인특성-전공 일치’요인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진로/취업 도움’ 요인, 기대와 현실 간 격차와 관련된 ‘기대-현실 일치’ 요인, 그리고 원하는 학과가 아님에도 선택했던 ‘의사결정 오류’ 요인 등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특성과 잘 맞는가 하는 ‘개인특성-전공 일치’ 요인은 외국 대학생들의 전공변경 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와 ‘흥미-전공 일치’가 전공 유지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인임을 보여준 연구(Allen & Robbins, 2008) 그리고 전공변경 희망 이유를 살펴본 결과 ‘흥미의 변화’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임을 지적한 연구(Gordon & Steele, 1992)에서도 개인특성과 전공일치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에 따른 1차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비교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 1차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차이를 살펴

5) 1차 전공변경이란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전공변경한 경우를 말함.

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공변경 실행 동기와 전공변경 실행 방식의 2개 영역에서 도출된 범주를 비교해 보았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는 두 집단 간 다르게 도출된 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범주의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집단 간 동일하게 나타난 범주이지만 범주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범주비율의 차이’이다.

1차 전공변경 실행동기 비교를 통한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의 전공변경 실행동기의 범주와 범주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범주를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적학과 수업내용이 어려움’이나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의 동기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는 전공재변경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움과 같은 ‘학업능력 요인’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요인은 크게 보면 수업내용에 관심 있고 재미를 느끼는가 하는 ‘흥미요인’과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능력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Allen & Robbins, 2008), 전공재변경 요인으로 학업 능력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의 동기 역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변경을 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인간관계 및 분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대처행동보다는 다른 전공으로 가려는 소극적인 회피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

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한다. 전공변경을 한 학생(자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자주하지는 않은 학생) 간에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번 이상 전공변경을 한 학생들이 3번 이하로 전공변경 한 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는 Cunningham과 Smothers(2010)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전공변경을 자주 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전공변경 행동의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두 집단 간 범주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주된 동기는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과 ‘입학당시부터 전적학도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와 상관없이 1차로 전공을 변경하였던 학생들은 입학했던 학과가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거나, 새로운 학과에 관심이 생기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사이에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적학과의 수업내용이 어려움’과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서만 보고되는 범주였으며, ‘희망진로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는 범주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의 전공변경 동기는 회피(avoidance)동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의 전공변경 동기는 접근(approach)동

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접근동기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생성되는 동기이고, 회피동기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생성되는 동기이다 (Elliot, 1999).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긍정적 결과인 희망하는 진로와 취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였다면 (접근동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부정적 상태인 수업내용의 어려움과 학과에서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공변경을 실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전공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피동기가 아닌 접근동기를 가지고 전공변경이 실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에 비하여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전공변경을 실행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만 보고되었다. 이러한 범주가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만 보고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범주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적학과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조차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적학도가 입학당시부터 원하던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는 바 없이 전적학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공변경 실행 방식 비교를 통한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의 전공변경 실행방식의 범주와 범주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범주를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에게서만 나타난 범주는 ‘전공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함’이었고,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에게서만 나타난 범주는 ‘교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이었다.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공변경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학과사무실, 연구실, 교내 취업지원센터 등 교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한 것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보탐색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기관을 통한 정보탐색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전공재변경을 희망하는 11명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공변경 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음’의 범주가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전공재변경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기 자신, 진로, 전공 등에 대한 정보탐색의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두 집단 간 범주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방식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는 ‘타인과 의논함(36.8%)’,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31.6%)’,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함(21.1%)’ 등 이었고,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지만 전공재변경 의향 없는 학생들에게서도 주요한 범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같은 ‘정적인 실행방식’은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집단에서 다소 높았고(의향 있음: 31.6%/의향 없음: 25.0%), 반면,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것과 같은 ‘동적인 실행방식’은 전공재변경 의향 없는 집단에서 다소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의향 있음: 21.1%/의향 없음: 25.0%).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변경을 실행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의논할 때도 훨씬 다양한 사람들과 의논을 하였으며, 교내 행정부서나 연구실 방문 등을 통해서도 전공변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방식으로 두 집단 모두 정보를 탐색해 왔지만,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공재변경 의향에 ‘적극적인 정보탐색’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은 ‘자신의 특성과 더 잘 맞는 전공을 찾아가려는 ‘개인특성-전공 일치’ 요인, 희망진로에 더 도움되는 전공으로 변경하려는 ‘진로/취업 도움’ 요인, 자신의 기대와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려는 ‘기대-현실 일치’ 요인,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움과 같은 ‘학업능력’ 요인, 적극적으로 충분한 정보탐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보탐색 부족’ 요인 등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할 때,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학생 개인이 준비할 사항과 대학의 지원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첫째, 학생 개인의 준비사항이다.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학생은 자기자신의 특성과 전공의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 위크넷, 커리어넷,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 뿐 아니라 가족, 학과동기 및 선배, 교수, 관심 진로분야 종사자, 상담자 등 다양한 타인과의 의논, 그리고 학과사무실, 학사팀에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관을 돌아보는 것, 교내 취·창업센터를 통해 해당 전공의 취업분야와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 관심 전공의 교과목을 미리 수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전공변경을 할 때 보다 만족한 전공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들의 적극적 정보탐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관심 전공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전공변경을 위한 상담 기간’을 정례화 하여 운영하고, 학과 교수, 상담센터 및 취·창업센터 상담자, 학사담당직원 등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타 전공생이 관심을 가질 때 기초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을 표시해두어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타 전공 교과목 수강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 전공변경한 학생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공변경을 고려중인 학생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전공변경이 대학생활 적응과 졸업 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공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1차 전공변경 후,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학생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와 대학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제 전공변경 및 재변경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실제 전공변경을 실행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전공변경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인 전공변경 실행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더구나 1차로 전공을 변경하고 전공재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1차로 전공변경한 학생들에게 전공재변경 관련 질문을 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연구방법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대학생의 전공변경은 대학 내 전과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편입을 통한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도 차츰 전공변경의 횟수, 시기, 제한 조건 등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사제도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학생들이 현 전공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회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대

로 준비하고, 대학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만족한 전공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본 연구가 작은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승호 (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강혜영, 김지연, 정태중 (2018). 이공계 대학생이 인식하는 전공불일치의 개념과 변화양상별 경험 탐색. *인간이해*, 39(2), 1-23.
- 강혜영, 이동혁 (2020). 대학생의 전공변경 실행 이유와 어려움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857-885.
- 고홍월(2017). 조기 진로목표 결정 대학생의 진로 재탐색-재결정 과정 분석. *상담학연구*, 18(1), 267-286.
- 김진희 (2014). 전공과 희망직업 불일치 대학생의 진로스토리에 나타난 진로결정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93-1021.
- 동의대학교 학칙. 제4장 휴·복학, 전과, 퇴학 및 제적. <https://www.deu.ac.kr/www/rules>에서 2022년 1월 11일 인출.
- 박안숙, 김혜경 (2016).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511-519.
- 박희인, 구자경 (2011). 전공-적성 불일치로 인해 전공만족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4(4), 173-190.
-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합의적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 순천향대학교 학칙. 전과에 관한 시행 세칙. https://rule.sch.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334&SEQ_HISTORY=1754에서 2022년 1월 11일 인출.
- 이수진, 임은미 (2012). 대학생 전공전환 경험의 내용과 과정 및 유형에 대한 질적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3), 171-202.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임은미, 이수진, 송미숙 (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전환 준비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4), 1-20.
- 주은선, 이수정, 김수연 (2016). 대학생의 인간관계 집단상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6), 175-205.
- 최보라, 모화숙 (201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939-955.
- Allen, J., & Robbins, S. B. (2008). Prediction of college major persistence based on vocational interests, academic preparation, and first-year academic performan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9, 62-79.
- Cunningham, K. E., & Smothers, A. W. (2010).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on major-changing behavior. *NACADA Journal*, 30(2), 65-71. doi: 10.12930/0271-9517-30.2.65
- Denice, P. A. (2021). Choosing and Changing

- Course: Postsecondary Students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a Major Field of Study. *Sociological Perspectives*, 64(1), 82-108.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doi: 10.1207/s15326985ep3403_3
- Gordon, V. N., & Steele, G. E. (1992). Advising major-changers: Students in transition. *NACADA Journal*, 32(1), 22-27.
doi: 10.12930/0271-9517-12.1.22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현상탐구의 실질적 접근. 서울: 학지사.
- Malgwi, C. A., Howe, M. A., & Burnaby, P. A. (2005). Influences on students' choice of college major.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0, 275-282.
doi: 10.3200/JOEB.80.5.275-282
- Sampson, J. P., Jr., Reardon, R. C., Peterson, G. W., & Lenz, J. G. (2003). Career counseling and service: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최정인 역(2009).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실제: 진로상담과 서비스. 서울: 한국가이던스(원전 2003년 출판).
- Shaw, E. J., & Barbuti, S. (2010). Patterns of persistence in intended college major with a focus on STEM majors. *NACADA Journal*, 30(2), 19-34. doi: 0.12930/0271-9517-30.2.19

원고접수일 : 2022. 01.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4. 09.

최종게재결정일 : 2022. 04. 19.

Exploratory Study on College Major Changing Experiences of the Students Who Transferred to Another Major*

Hye-Young Ka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Donghyuck Lee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had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was to identify the reasons why college students who already changed majors wanted to do so again. The second purpose wa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ing majors among college students who had already changed majors once. In this study,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33 college students who changed majors one time. Among them, 11 students were interested in changing majors again while the remaining 22 were not.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re were three major findings. The first finding was that students who intended to change majors again did so to find new opportunities for their futures and out of dissatisfaction with their second major. The second finding was that students who intended to change majors again had initially changed majors due to difficulties and discomforts that they had with their first major. However, this avoidance motivation was not observed in students who were not interested in changing majors again. The third result was that students who did not intend to change majors again searched more for career-related information while changing their majors initially than those who did. This paper presents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college students, career counselors, and college administrator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hange of College Major, Second Change of College Majo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Education and Research promotion program in 2020.